

**금주의 기도**

2020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http://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월 4일 (토) 제 1761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 처음 가는 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20년 새해다. 아무도 이 2020년을 걸어본 적이 없다. 모두에게 처음 가는 길이며 생소한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방식이 여러 있다. 무작정 간다. 누군가 노래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저 하늘에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따라, 정처 없이 걸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 삼아가며...” 낭만적이지만 그렇게 새해를 걸어도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이제껏 살아온 경험을 앞세워 가려고 한다. 경험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과거로 미래를 열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다. 또 다른 사람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듯이 이런저런 미래지도(?)를 찾아본다. 새해에 점(占)집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다소 복채(卜債)가 적은 길거리 토정비결(土亭秘訣)과 사주팔자(四柱八字)에도 새로운 길을 맡기려한다. 어리석음의 극치(極致)일 뿐이다.

여행할 때 안내자와 함께 갈 때가 있다. 나는 처음이어서 그 길에 익숙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두려움은 다운(down)되고 기대감은 업(up)된다. 안내자가 실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다. 시간 때우기 식의 안내로 여행의 고단함에 안내의 피곤함을 더해주는 안내자도 있다. 그러나 그 길에 익숙함과 박식(博識)함, 재미로움과 진지함을 가진 안내자를 만날 때도 있었다. 게다가 신앙까지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그 여행길은 즐겁 휘파람이 나온다.

오래 전 유럽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처음 가보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 차에 서로 다른 세 분의 안내자를 모시게(?) 된 것이다. 여행 전체 안내자, 그 지역의 한인 안내자, 그리고 현지인 안내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것이 그 지역의 여행 규정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다들 그 지역에 일가견(一家見)이 있으시지만 나는 전체 여행 안내자만 따

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처음부터 우리 여행 그룹이 보고 따라오는 녹색 깃발을 드는 담당자로 자칭(自請)하였기에 전체 여행 안내자 옆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터라 중간에 깃발을 남에게 넘길 상황도 아니었다. 그 전체 안내자는 앞서 말한 안내자의 덕목(德目) 다섯 가지, 곧 익숙, 박식, 재미, 진지, 그리고 신앙을 두루 갖춘 분이였기에 그의 조수(助手)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빼고는.

스위스 산정을 케이블을 타고 올라갈 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산 아래 전경(全景)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전체 안내자는 실망감을 안고 있는 우리 여행 그룹 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 그룹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 밖에 목사는 없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저 산정에 올라갈 때 구름이 다 걷혀 산 아래의 맑은 광경을 볼 것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삼십 여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삼삼오오(三三五五) 웃으며 자기 앞에 다가온 케이블카를 탔다. 나도 탔다. 웃을 수는 없었다. 염려와 기도가 섞여 산 정상에 도달했다. 구름은 더 짙어졌고 나는 그 전체 안내인 때문에 산 정상 저 구석에서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의 주인공이 되었었던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여행길을 가 본 안내자는 무수히 있어도 새해를 가 본 안내자는 이 세상에 없다. 아니, 계시다. 이 찬송에 그 답이 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2020년 새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존 베일리의 새해의 기도를 아실 것이다. “나의 첫 생각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첫 감정은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첫 언어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첫 행동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소서.” 거기에 살짝 덧붙여 본다. “나의 첫 걸음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걸음까지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신년 시**

### 성령의 영광로 속에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고훈 목사**  
(시인, 안산제일교회 원로목사)

일찍이 동방의 등불로  
열방을 비취던 영광스런 한국교회  
어찌다 지금은  
발하는 소금으로 꺼져가는 등불로  
비난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까

제단에는 새벽불이 꺼져가고  
소제와 전제가 사라지고  
백성의 소독은 줄어들어 제사장들은 울고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선지자 같은 시대

모양뿐인 우리들의 부끄러운 경건  
양떼에 소매에 마음 돌 목자들은  
치부하고 살진 몸으로  
이미 왕도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평신도  
뿔과 할렘으로 기름 부은 종들과 서로 물고 먹으며  
예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말망의 가증한 이단 사이비는  
거룩한 성전에 등지를 들고  
성차별 금지법  
평등의 기면을 쓰고 성서를 짓밟으며  
북방 선교사들은 추방당하여 쫓겨 오고  
파송하는 사명은 식이가고 농어촌교회는  
혈땀고 배고고  
개혁교회는 문 닫고 이단에 팔려가는 성전들  
성도들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뿔된 교회는  
비어가고 능력과 사랑을 잃고 있습니다

진보는 안보 없는 위험한 통일은

보수는 통일 없는 갈등의 안보를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錦繡江山)은  
금수강산(鎭守江山)으로 황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없는 사랑은 탐욕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치는 비관입니다  
정치 받지 않을 만큼 안전한 교회도  
정치할 만큼 무용한 교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는  
자비로우신 주여!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구하여주소서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뿌려 세운 영광스런 교회입니다  
민족을 통일하고 열방을 건질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웃을 짓고 가슴을 짓으며  
애도하며 금식하고 통회하며 자백하오니  
영광로 속에서 정금 정금이 될 때까지  
썩어가는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불지르십시오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  
주여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론**  
최해근 목사



**신년설교**  
양수철 목사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4면, 15면

**신년특집**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할렘루아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영구 / 생애 / 역사 / 개인 / 교재 / 음악 / 영성 / 영안기부서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3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Glenwood Terrace Park Ridge,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chpress.net | hgm@chpress.net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용품, 동시공역기, 생가복합 주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830-8080 | bibv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양성

# 2020 봄학기 신입생 모집

유학생 특별 장학금  
대학과정 정부 학자금 혜택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1.7 (화) 오후 7시

LA 캠퍼스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입학설명회 참석자는 입학금 면제 혜택

**캠퍼스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간호학과 (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글로벌 리더십) / 상담심리학과 / 음악학과 / 예배학과
- 박사과정 : 목회학과 / 교회음악학과
- 수료과정 :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간호학과 (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글로벌 리더십) / 상담심리학과 / 예배학과
- 수료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 / 비영리단체 (NGO/NPO) 사역

**| ABHE, ATS 정회원 |**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미군목장교 지원 ·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온라인 수업, 모바일 사용

문의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 213.388.1000 | [www.wmu.edu](http://www.wmu.edu)



**시론**

**시간을 건져내는 삶!!**



**최해근 목사**  
(용고메리교회)

대학에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많은 강의 중에서 머리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영문학 시간에 한 교수님이 '살다'(live)는 것에 대해 대단히 인상적으로 단어 풀이를 해주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live'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이고 누구나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게 되면 'evil'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의미는 '악'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뜻을 만들어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 악이 물러가고 선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나갔을 때, 영어로 표현하면 'lived'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lived'라는 단어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devil', 곧 '악마'의 뜻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막상 그 삶을 다 살고 나면 악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자신이 '악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단어를 이용한 단어유희에 불과하지만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시간과 세월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를 놓고서 성경 밖의 세상에서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선하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은 점점 세상 속에서 티가 묻고 흠이 생기는 부패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자신이 '악마=devil'이 되어 있다는 영어 단어유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의 시간을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즉 가치 없고 부패한 시간, 악을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인생은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무슨 거대한 악한 일을 함으로써 악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대담하게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잠5:16)고 말씀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구원한다, 구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인들의 삶 속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시간, 죄악을 만들어 가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게 될 경우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다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생명을 끊으려는 살인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철저하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땀 흘리고 가슴 졸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어진 모든 시간이 선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됩니다.

한 해의 첫 발자국입니다. 첫 발자국을 디디면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그리고 악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시간을 반드시 '건져내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작정 없이 보낸 후 한 해의 끝 마당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악한 도구로 쓰여졌음을 보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부패한 시간을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해를 살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선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건져내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choi82@yahoo.com

**모든 것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코노미스트, 2020 세계 대전망 보도**

2020년 미국 경제가 불황에 허덕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다본 가까운 미래다. "2020 세계대전망"에는 이코노미스트 필진으로 참여한 학자, 정치인,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담겼다. 110개국 25개 언어로 동시 출간된다.

2020년을 맞아 이코노미스트는 불안함과 풍성함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심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먼저 글로벌 경제는 악세로 접어들어 마이너스와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불안과 분노라는 양극화 가운데서 치러지게 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AI의 분석에 따라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되리라 예측한다. 더욱 격렬해진 미중 무역전쟁의 대결구도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어느 방향권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길 것이며, 세계 시장의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은 2020년에도 내내 지속될 것

선을 통해 과거 진행했던 장기적 미래 예측을 진단하고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예상해본다. 그밖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라파엘로 사망 500주기, 금주법 시행

인 이슈를 만드는 인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A.I-인공지능의 발전 도쿄(TOKYO)-올림픽 화성(MARS) 기후(CLIMATE) 시진핑(XI)-국내 안팎

VISION-붉은색으로 강조된 VISION이 눈에 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쥐(RAT)-흑사병의 창궐을 예측하고 있는가? 핵 확산 금지 조약(NPT)-북한의 핵개발 재개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국가들(일본, 한



**경제 불황 국면, 트럼프 재선 여부가 키워드 '올드(Yold)' 시대, 30세 이상 과반이상 차지**

로 나온다.

기술 업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늘을 나는 택시와 전기 슈퍼카, TV 스트리밍 기술, 개인 맞춤형 의약품 개발은 호재의 기회를 맞겠지만, 기술 대기업에 부과된 엄격한 규제와 강도 높은 세금과 조사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비자, 서비스, 금융 시장을 뒤엎을 본격적인 '올드(Yold)'의 시대이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만 30세 이상 인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조망하며, '2020 비전'이라는 키워드의 특별 섹

100주년, 비틀즈 해체 50주년 등 풍성한 문화와 2020 도쿄올림픽, 유로 2020 대회 같은 여러 스포츠 이슈까지,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표지에 등장하는 글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THE WORD IN 2020 - 붉은색 20 상한가, 녹색 20 하한가, 주식시장이 2020년 전반기에는 상한가를 구가하다. 하반기 때는 하한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TRUMP)-2020년도에도 트럼프가 가장 전세계적

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침체(RECESSION) 모디(MODI)-인도 모디 총리 엑스포(EXPO)-두바이 엑스포

SDGSBOND -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연계 채권, 2019년 세계최초로 15억 달러의 SDGS 연계 채권이 발행됐다. 베토벤 (BEETHOVEN)-베토벤 탄생 250주년

국?) 등장할 것을 예측한 것인가?

워렌(WARREN) 라파엘(RAPHAEL)-라파엘로 사망 500주기 나이팅게일 (NIGHTINGALE)-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러시아(RUSSIA)

[정정] 1760호 2면 발행 인칼럼 위에서 15째 줄에 "별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로 정정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한국국)  
Fax: (718) 886-0074 (광고)  
E-mail: nyc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0.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oel 2:28-32 (2) NT Exegesis Text : 1 Peter 2:1-10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the Law in terms of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Haggai 1:1-8
-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0.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0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4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2-15, 20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5(Tue)-6(Wed), 2020
-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Western Regi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Rev. Won Bae Son)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5-6, 2020) through Rev. Euihan Jang.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Euihan Jang  
Address :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Cell : (603) 553-1991 E-mail : euihan@hot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Euihan Jang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양수철 목사  
서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



# 신년설교

우리는 1월을 정월(正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바를 정'(正)자를 써서 '정월'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모든 구멍들은 엇갈리듯이 처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달이기에 정월을 부르는 이름도 매우 다양하네 단월(端月), 맹양(孟陽), 맹추(孟秋), 맹춘(孟春), 발세(發歲), 발춘(發春), 방세(芳歲), 수세(首歲), 신원(新元), 원월(元月), 원정(元正), 월정(月正), 이단(履端), 이원(履元), 인월(寅月), 조세(肇歲), 청양(靑陽), 초세(初歲), 초춘(初春), 주월(陬月), 탁금(鐸金), 태양(泰陽), 태월(泰月), 태주(太嘯)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첫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부를까요?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낫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인데, 설날을 '새해에 대한 낫설음'과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 날' 즉 '개시한다'(開始)라는 뜻의 '선'이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선날'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연음화 되어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다'에서의 '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인데, 곧 '살'이 '설'로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근거로는 동물의 숫자를 세는 '머리(豆)'가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하는 '마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설날을 '삼가다(謹愼), 근신하다'라는 뜻의 옛말인 '설다'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신일'이란 '삼갈 신'(愼) 자를 써서 '삼'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이

로 모든 언행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초하루부터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목표를 정하고 정진(精進)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일본인 전도자 미네노 다쓰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두란노 출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하게 여긴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의 장례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

고 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시상식이 거행되는 종착역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라틴어로 '피니스'(finis)인데, 이것은 종말(영어 finish)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과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표와 종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종말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참다운 목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부터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뜻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단어, 헬라

어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헬라어, 타 오피소)이란? 바울이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일들과 자랑할 만 한 일'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졌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지요. 그러나 그런 과거라도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사무엘 잔스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와 같이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길 보면 사도 바울이 꽃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문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33번,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4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신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승을 했다는 네티이 유래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싸우는 것과 하는 수 없이 싸우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써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하나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된 사람들이 자기의 주군(主君)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력질주(全力疾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쫓아가노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미워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선상에 두셨던 것입니다. 대신 성경을 보면 "여호와와 열심히 이를 것이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안에서'라는 'En'과 '하나님'이란 'Deos'가 합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이란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는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정있게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새해에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전심전력(全心全力)하여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새해

빌립보서 3장 13-14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양수철 목사 (에버그린선교교회)



부했습니다. 그러나 함축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상실한 삶은 기초 없는 빌딩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목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로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시대 때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황제가 씌워 주는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4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30%나 됐습니다.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그래서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12%,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며 사는 사람'이 1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내 인생의 찌꺼기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그것이 나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내 인생이 발전합니다. 왕년을 따지면서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은 물귀신처럼 그것이 자기를 잡아 끌어내리고 몰락시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흑시 남자들이 네티이를 매개 된 유래를 아십니까? 옛날에 전쟁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군대의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요.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어머니나 부인이나 아내의 속옷을 가져왔더니 장군이 다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목에 매라, 그리고는 그 속옷의 향배를 맡으면서 싸워라. 만약 너희가 이긴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요, 만약 진다면 영원히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연합한 군대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게 대

# 2020 신년 축복 성회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장영출 목사

반백년을 말씀을 듣고 전 세계를 성령과 동행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전해야 할 핵심 주제를 듣는다.

- 2020년 1월 13일 오후 2시  
2020년 1월 14일-16일 오전 10:30, 오후 4시  
목회자 초청 성경 핵심 세미나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영성"  
목회자, 사모, 평신도사역자 대상
- 2020년 1월 13일 - 1월 16일 밤 7시  
일반 대중집회 "새해 새은혜 새생명"
- 장소 임마누엘 수양관 (29365 Richmond Tpke, Ruther Glen VA, 22546)
- 접수 804-994-5441 | sisusa@gmail.com | 크리스천 심 목사
- 지참물 성경, 필기도구, 개인 실내화, 침낭 필수

\*숙식제공 가능하니 미리 연락 바랍니다.



장영출 목사 약력

- 공군사관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졸업
- 철학박사
- 신학박사
- 공군 군중감 역임
- <현재>
- 예수제자선교회 회장
- "생명의 영성" 저자

주최: 예수제자선교회 국제목회자아카데미

후원: 엠마오 연합감리교회(김철기목사), My Good Shepherd



# 신년메시지

## 독수리 날개 치며 비상하는 새해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이성권 목사 (아틀란타 새한장교회)



이제 막 포장을 뜯고 2020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받으신 미주 크리스천 이민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큰 복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보낸 기분입니다. 바로 2020이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30을 내다보며 새로운 고지를 향해 달려가도록 이미 달음질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 해가 바뀌면 나이는 먹어 가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도 더 낮아지게 되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고후4:16)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새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교회들은 약해져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일어나 생명의 복음을 강력으로 전파하며, 이 땅에 성령의 강풍이 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며 비상하듯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Let's Go Together! Let's Go With God!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잇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반경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군가가 첫 해 아침 8만6천4백불을 주셨으니, 하루 동안 의미 있게 써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며 좋은 일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시간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 8만6천4백초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담고 흐르기에 더 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요, 그 시간을 통해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기에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2015년 캐나다 쇼트트랙 월드컵 500미터 종목에 한국의 최민정 선수는 1000분의 1초 차이로 역전승을 거두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존 오코너라는 역무원은 열차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취객을 1초 직전에 건져냄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똑 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치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엡5:16)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말하며, ‘아끼라’는 것은 ‘놓치지 말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기회들을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아 정말 소중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엡5:15-16)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해줍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9:10)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시간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네비게이션 삼아 온전히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새해는 2020(이공이공) 20이 짝을 이룬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여 말씀과 함께 한 걸음씩 시간을 수놓아 간다면,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주시길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Let's Go Together! Let's Go With God!!!

## 약속이 지켜지는 한해 되길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장교회)



사람의 서원은 손해를 보고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주 망각하지만 약속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형통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역사적 인물은 록펠러와 풀게이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와 매일 성경 한 장을 꼭 읽자고 서로 굳게 약속했다고 후일에 회상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어. 그 친구 역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킨 것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약1:17)이라고 말씀합니다. 2019년 우리는 얼마나 성실히 약속을 지켰습니까? 왜 약속들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렘34:10절에 보면 달라지는 언약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노예 해방은 왜 합니까? 어차피 망하면 다 해방되는 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처지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로 이들을 돌아보면 나도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약속이 강조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v14)는 원칙에 충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선입니까? 급한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결국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16절은 조상의 길을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철”이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전철입니까? 관례나 세상의 편리함입니다.

또 렘34:17에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을 망각하면 은혜가 그칩니다. 약속을 변경한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습니다. 약속은 서로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서원과 약속을 함부로 변경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알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고도 도무지 고치거나 지킬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언약은 소나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반을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 놓은 상태에서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지나가면 피로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고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쪼갰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약속이 달라지면 언약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 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 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민30:20).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잘못 살았어도 2020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해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약속이행부터 시작되는 은혜임을 알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뉴욕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이 신실히 지켜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성령과 말씀으로 방향 잡는 교회되길 아틀란타교협 회장 남궁 전 목사(아틀란타베다니교회)



아틀란타 교회협의회회의 표어는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본문(사61:1-3)입니다.

요즘 세상이 힘든 만큼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도 몹시 힘듭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제가 알건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던

데,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기하고,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 무드에서 성도들조차 신앙의 개인화, 교회의 개교회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화를 도모하며 무기력, 무관심, 무능력으로 마치 타다 남은 잔과 같은 연기가 된 피워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뜨거워지고, 순전한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적으로 일상화되고,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몸 된 기관으로 모든 디아스포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도 영적 질서가 잡히고, 윤리의식이 회복되고, 행복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신나고, 즐겁고, 간절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신나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바람으로 성도들이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매일 성도’가 되며, 교회는 ‘Leading 기관’이 되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체적으로 거침 없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지막 부흥을 얻원하고, 교회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의 행복이 아닌 가나안의 행복이 정오의 빛 같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성령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되어, 신나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됨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주님의 은총의 해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비전이 우리 지역과 모든 곳의 기적과 간증, 그리고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새해 맞자! 기감미주자치연회 감독 은희곤 목사(뉴욕참사랑교회)



주님의 평강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히말라야 고산 지역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는 흔히 등반가의 짐을 날라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셰르파’라는 말은 नेपाल 고산지대에서 사는 소수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약 500년전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계곡으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셰르파’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향해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셰르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Path, 사람들이 지나 다니며 생긴 작은 길+Breaking, 깨뜨리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미련, 후회, 실패, 억울함, 아쉬움 등등이 앞을 향해 나가야 할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삶은 뒤를 보는 ‘후회’가 아니라 ‘잠회’하며 이를 디딤돌 삼아 앞을 보며 달려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패스브레이크(PATH BREAKING) 정신으로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개척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시는 나날의 일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닫힌 문도 열리고, 없던 길도 생기는 해결과 응답 그리고 꿈의 성취가 주 안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믿음회복, 교회회복, 일군 바로서는 해 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총회장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



2020년은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Mayflower호를 타고 이 신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여정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으며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종교적 마초의 시대는 아닌지 의심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실 터인데 기필코 이 새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수많은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를 대표해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첫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족대를 어떻게 하실 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 “복음을 삼시다”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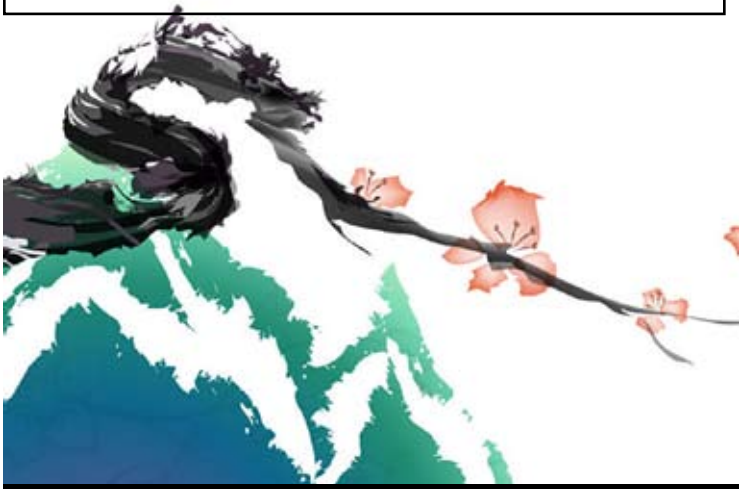


사랑하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께 2020년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회원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마28:18-20).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쫓대입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33회기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눅10:28, 37)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뉴저지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이를 위해 교협의 행사와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십시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신년메시지

## ‘맑고 투명하게’ 사는 2020년 되길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이기성 목사**(밴쿠버삼성교회)



작자미상의 “호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호수가 하늘을 품고 있는 것은/하늘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이다./호수가 구름을 품고 있는 것은/구름보다 커서가 아니라 맑기 때문이다./호수가 산을 품고 있는 것은/산보다 웅장해서가 아니라 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맑은 것이 힘입니다. 투명한 것이 위대함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깨끗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부피가 아니라 맑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무게가 아니라 투명함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점점 탁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더 맑고 더 투명하게 산다는 것이 아닐까요? 2020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결단

북가주교협총연합회장 **조영구 목사**(피스토스장로교회)



2020년 새해를 열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잘 아시면서도 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세상의 전망은 매우 어둡게 느껴집니다.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은 계속 될 것이고,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 간의 군사적 갈등도 계속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의 문제도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편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지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컴퓨터의 기술은 우리를 당황시키고 쉽게 소외시키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해에 큰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은 세상이 혼돈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만드시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능히 부활시키시고 영생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평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며 새해를 전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또한 2020년 새해에 지역 교회협의회로 열심히 모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

## ‘이해, 양보, 배려, 사랑’ 에 매진하는 해

SF교협 회장 **박용준 목사**(심포니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즐기시는 새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종 운동선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시즌이 끝나면 일정기간 휴식을 갖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지만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육체나 정신적으로 쉬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시즌 기간을 잘 보내지 못한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새 시즌에 적응하거나 혹은 시즌 전체를 헤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해의 수고를 보상 받으며, 지친 마음과 몸 에 충분한 쉬를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지로 새해의 기분을 내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감출 수 없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인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은 점점 ‘이해, 양보, 배려, 사랑, 평화’가 부족해집니다. 대신 긴장, 경쟁, 큰소리, 갈등 등이 우리가 가야 할 2020년의 여정을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건강하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이해, 양보, 배려, 사랑’ 등으로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답게 ‘이해, 양보, 배려, 사랑’의 삶에 더욱 매진합니다. 비록 인생에는 비시즌이 없어, 꼭 필요한 ‘쉬’없이 새해를 시작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잖아’고 하시는 위로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 해되시길 기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9-10).

## 지혜로운 선택으로 행복한 한해를

라스베가스교협 회장 **임명진 목사**(우리좋은장로교회)



한 해가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 선조들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일 년의 시작은 정초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초의 계획이 1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초에 좋은 계획들을 세우면 일년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지만,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한해를 망치게 됩니다.

아직 1월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 인생은 달려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에 의하여 우리 인생은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결과는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로 갈릴 것입니다.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행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불행과 저주는 거부해야 합니다. 불평과 나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까지 훼방하고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식은 밥 한 그릇에 물을 붓고 김치 하나로 반찬삼아도 내가 행복해 하고 감사한다면 나는 누구 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선한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도 선택이고, 직장도 선택이고, 종교도 선택이며, 학교도 선택입니다.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잘못하면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직장을 잘 잡으면 평생을 부요하고 넉넉하게 살지만 잘못 잡으면 가난하고 궁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고 잘 되지만, 선택을 잘 못하면 실패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택의 결과가 냉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운명과 팔자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해 놓고, 또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 빠져서 실패해 놓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남의 탓만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2020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가지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2020년이 행복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 ‘예수는 내게 누구신가?’ 응답하는 해로

새크라멘토교협 회장 **김 승 목사**(크로스포인트교회)



북가주 수도인 새크라멘토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Ezra Kim) 목사입니다. 이 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해 인사 올립니다. 2020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함을 의식하며 12월 첫 주일, 저는 ‘요한일서강해’를 시작하며 “응답하라, 20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땅에 로고스요, 생명이요, 빛과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적어도 2020년도에만큼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응답’을 해보는 원년으로 삼으려는 도전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교회란 어느 지역에 세워지든 그 지역민들이 “예수는 내게 누구이신가?”라는 이 원초적 질문에 대한 실존적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설거는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감당하지 않을 거면 존재이유가 없는 그런 곳으로서의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새크라멘토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북가주 지역에서 발행하는 ‘H일보’에 10년 넘도록 ‘종교인 칼럼’에 글을 기고해왔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는 늘 찢찢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신문에서야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목사를 종교인의 일인으로 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구세주라는 사실을 불변의 진리로 확신하는 저로서는, 혹시 내 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종교지도자의 일부로 밀리시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주크리스천신문”은 그야말로 “우리마당”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은근히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를 맘껏 드러내는 게 자랑스러운 곳 말입니다. 기독 신앙이 ‘종교’의 일부가 아닌, 세상 속의 유일한 희망임을 맘껏 선포하는 언론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 지역의 교회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일 잘해내는 귀한 신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공동체로

OC교협 회장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된 이후로 벌써 20년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평안을 인사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OC)교협의 활동을 걱정하며 기도해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더욱 기도하며 협력하며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환경 위기,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OC교협은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은 채움을 받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감,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명분 있는 사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12절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 금년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위해 (1)성경읽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기 위해 (2)이민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3)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OC교협이 되려고 힘쓸 것입니다.

OC교협 산하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꿀벌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십시오.

교회와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하나님 영광을 보는 2020년을 소망하며

순복음복미총회 총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하나 뿐인 자신의 생명도 희생할 각오로 산을 오르는 어떤 이는 산이 있어 산을 오른다고 하지만 산을 보면 산을 오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산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인 소요리문답

(The Shorter Catechism)의 1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힘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나서는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에서 지내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큰 교회 건물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에 역부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자신의 이익과 명예 앞에서 죽지 못한 자아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비난과 불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삭막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출24:17)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한 불과 같이 보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 재창조의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길

뉴저지교협 회장 **유병우 목사**(드림교회)



아쉬움...설레임... 한해가 저물 때면 꼭 생각나는 단어들입니다. 아니, 세상을 살면서 늘 반복되고, 교차되는 단어들이지요. 지낸 시간들 속엔 아쉬움이... 내일의 시간들 안엔 설레임이 있게 마련이지요.

2019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 담긴 무게는 내 주님 어깨로 넘기시고, 2020을 맞이하는 설레임을 부활하신 그 주님 등에 담고 차오르시길 바랍니다.

Recreation... 쫓고 피는 숫자에 새로운 재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 각 개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임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교차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2020년 진리 탐구

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가장 보편적인 답은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 지식이어야 한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 진리'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논증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진리 추구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이유는 간단하다. 진리는 인간의 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어 보자. 과연 커피 또는 계란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의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는 동일하다. 자신의 이론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학설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양면적이다. 신선한 정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심한 혼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자 다를 때 더욱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 이미 진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객관성 내지는 보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변하는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나 공식들, 즉 가변적인 사실들을 진리로 간주할 수 없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는 이치도 진리의 범주에 속해줄 수 없다. 진리의 전제는 영원성이다. 문제는 인간 자체와 인간의 산물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리 전쟁**  
과연 인간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전문분야에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애써 찾는다. 일상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항상 끼고 산다. 특히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분야를 기웃거리는 동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리전쟁'에 끼여든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이분법이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개로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를 옳은 것으로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를 거부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노골적으로 드러난 갈등구도로 인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분법' 또는 '이원론적 사고'는 중세 기독교철학이 지녔던 특징적 틀이다. 이 세상이 선과 악, 순간과 영원, 빛과 어둠과 같이 대립되는 두 개의 실제로 구성되어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자신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사실들은 마치 뷔페식당에 푸짐하게 차려진

너희들의' 이분법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절대적인 진리가 해와 같이 드러났어도 개인 또는 집단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진리는 어디에 DNA조작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량의 농산물이 풍족하게 재배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에 진

말고, 대중 삶을 즐기며 살라고 회유하는 소리도 한 몫을 한다. 사실 풍부한 물질과 세속적인 성공을 신으로 삼고, 이를 목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만일 세상이 주는 혼동 속에서, 과연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답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진리는 객관적이며 영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이다. 진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진리를 떠난 신앙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진리를 배워 익히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진리를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신 내용이 지닌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막 7:8).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자체가 절대적인 생명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조작되거나 불순물이 첨가될 수 없다. 개인과 공동체가 공유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보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다.

### 청교도의 신앙

11월 추수감사절마다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식민지로 건너온 청교도들이다. 또한 미국이 지닌 신앙적 저력을 언급할 때에도 반드시 그 기초를 놓은 청교도들의 사상이 언급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청교도'라는 단어와 매우 친숙하다. 1894년에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의 의해 최초로 번역된 이후 계속 한국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천로역정'이 일조한 듯 하다.

그러나 '청교도'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그들이 누구들이며 어떤 사상을 지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경건한 신앙을 추구했던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청교도'들은 '모범적인 신앙'을 넘어서 '금욕적 신앙'으로 오해되었다. 그리고 그 전통이 후대 교회에도 남아있다.

청교도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배경으로 헨리 8세(Henry VIII, 1491-1547)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부터 체계화된 개혁적 사상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7면으로 계속)

## 진리의 기준-그것이 알고 싶다(1)

**조진모 목사**  
웨스트민스터 Ph. D, 역사신학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영원성을 전제... 현대는 이분법적 사고 팽배 진리추구 적극적 구체적 방법은 유일한 진리인 성경의 지배 받는 것 분명한 답을 못하면 반드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상태 재점검해야

다양한 음식과도 같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점시에 옮겨놓듯이, 진리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선택하여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전쟁'에 뛰어 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사실이 진리라고 믿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이와 대조되는 모든 것은 비진리임으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견되는 '진리전쟁'은 집단이기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일 것이다. 그 출발점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규명이 현저하게 다름으로 발생하는 갈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 자체를 확인하려는 태도는 사라져버린다. '나와 너' 우리들과

리조차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하다.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상황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시대적 산물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러면 철저한 이분법에 근거한 '진리전쟁'을 이용하여 어떤 일도 꾸며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과연 진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걸림돌은 '나의' 또는 '우리의' 논리이다. 이와 버금가는 장애물은 진리는 없다거나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설득하려는 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로 신앙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신앙인의 신분으로, 위에 설명한 세속적 이분법의 틀에 사로잡혀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면 반드시 신앙의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리신 중보기도의 내용의 일부이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남아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롭지 못한 것과 구별되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따라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2020년 목회전망

점점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21 세기의 담론은 '문화'와 '소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문화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이민 목회자들은 물론이거니와 200여만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다 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복 음 사역자들에게 교차 문화 사역은 피부로 느낄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화 간 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이다. 문화 간 소통 능력이란 문화적 특징과 차이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냐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 가운데에서도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통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적용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목회에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할 때에 주로 언어 곧 메시지 전달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차 문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 소통만이 아니다.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삶으로 체현해 내는 소통의 능력이 목회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문화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 외에 그 문화에 내재한 다양한 의미와 행동양식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목회는 다양한 문화에 내포된 의미를 관통하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 1. 성경과 소통하는 목회

현대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영역은 성경문화이다. 목회는 물론 삶의 원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는 성경과의 소통이다. 매일의 삶에서 성경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적 삶으로의 변화는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과의 소통은 끊임없는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되기에 진정한 복음적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오는 것이다(딤후3:16-17).

성경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자의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관통하는 구속사적 맥락과의 소통이다. 곧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소통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소통이다. 구속사의 흐름은 이렇듯 삼자의 문화(삼위하나님, 세상, 인간)를 타고 복음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문화를 버리고 인간 세상 문화 속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교차문화적 소통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소통으로 체현되어지는 것이 목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단히 성경의 문화적 맥락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것을 이 시대의 문화에 적용하는 영적 씨름을 수없이 반복하며 성육신적 삶으로 적용하며 체현해낼 때에 진정한 복음적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성경 문화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광맥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흐름(요5:39)을 놓쳐버린다면 마치 신, 구약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얻어지는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에 만족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상황윤리, 혼합주의의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실한 사역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차니티티(Christianity Today)의 마크 칼리가 지적한 대로, 신앙의 기본 틀은 두 가지로, '바른 신학, 혹은 가르침'(Ortho-dox)과 '바른 실천'(Ortho-praxis)이라 말할 수 있다. "좋은 신학적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도 이웃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며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먼저다"라는 지적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교회의 복음적 사역은 성경과의 바른 구속사적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로 이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 중심적 목회전략'이 진정한 복음적 소통의 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일방적인 소통이 강조되는 대형 집회보다는 교회 내의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여 성도 간의 쌍방 소통의 기회를 늘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환경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복음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있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다원주의적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신하지도, 그렇다고 담대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상관성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복음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때론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세상 변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 정

신념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세상과의 복음적 소통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한국 정치현장에 등장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다양한 정치행위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며 세상과의 복음적 소통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는 제사장적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을 책망하고 혹은 경원시키고 충돌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하는 사명에 부름 받고 있다. 세상과의 진정한 소통은 세상과 원수 맺는 것도, 세상과 짝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구속의 복음으로 제사장적 소통을 해야만 한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등 당대의 선지자들은 세상을 책망하며 등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아픔과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기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히5:7; 9:11-12). 현대 교회는 자기 기반적 목소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적 헌신으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적 소통이 절실하다.

현대교회는 세상 문화에 대한 변혁적 소통을 추구해야한다. 변혁적 소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 사상과 문화적 속성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석하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소통하는 원리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10:5)고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속 문화와의 충돌보다는 소통을 통해 구속을 이루고 있음을 변증한다(벧2:5-11). 충돌을 피하려면 반드시 세속 문화와 적대적이 되든지 아니면 은둔주의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빛과 소금은 세상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점적점적 통해 새로운 변화로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변혁적 소통의 원리를 보여준다(행17:22-34). 아덴이란 도시문화 속에 침전해 있는 다양한 우상들에 대해 복음적 접촉점을 찾아 변혁적 소통을 추구했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행17:34). 현대 교회는 세상 문화와의 충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불경건하다고 피해서도 안 된다. 세속화는 경계해야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장벽을 뚫는 변혁적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목회전략이 요구된다.

분명 현대교회의 목회환경은 다문화적이고 그만큼 복잡하며 모호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문화를 통해 소통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결코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약하지 않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뜻대로 바라보며 성경과의 소통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다양한 문화현장 속에서도 복음적 소통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현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johndjc@yahoo.com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청교도들이 지녔던 교리와 신앙의 기준을 접할 수 있을까? '청교도 혁명'의 산물을 통해서이다. 1643년 내란 중에 영국의회가 모였다. 웨스트민스터대성당에 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제정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필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모든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진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심스레 풀어갈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 “문화와 소통하는 목회”

###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 2. 사람과 소통하는 목회

현대 목회 현장은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교차하며 소통하고 있기에 문화적 삶의 정황들에 대한 이해가 복음적 소통에 필수적 요소이다. 사람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 자칫 개개인의 삶의 정황과 특성을 무시하는 일방 소통 중심적이기에 자칫 그 결과는 '가나안 시대(?, 교회 '안나가는 시대)'를 급속하게 할 뿐이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는 교회를 조직체로 가동

### 3.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충돌하면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마5:13-14) 십자가 복음의 소통을 목표로 해야 한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Counterfeit Gods)에서 오늘날의 우상들은 그 옛날의 석상이나, 목상으로 깎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극히 복잡한 개념으로 지적 범주와

치권력화 되어가는 타락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관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세상을 향해야 한다.

### 복음적 소통(Gospel Communication)

현대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복음적 소통(Gospel Communication)을 익혀 가야 한다. 복음적 소통이란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을

## 세속화 경계하되 다양한 문화적 장벽 뚫는 변혁적 소통 추구하는 목회전략 요구 성경 문화 소통에서 가장 중요 광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흐름 세상 향한 선지자적 소통보다 구속적 복음의 제사장적 소통 더 중요

해야 하고, 성도를 신앙의 소비자로 간주하여 마치 기업홍보를 하듯 각종 현란한 이벤트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속적 경영 전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심각하게 상품화하게 된다.

현대 교회의 세속화를 끊임없이 추적해오며 신학적 아젠다를 던져주는 하비콕스(Harvey Cox)는 그의 최근 저서, "신이 된 시장"(The Market as God)에서 지적하기를 시장, 곧 자본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오늘날 신의 위치에 올랐으며, 교회 역시 오직 '성장'만을 강조하는 시장 논리로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단 초대형 교회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경영전략, 물질주의적 소비문화에 사로잡힌 현대 교회의 자본주의화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문화에 굴복한 교회는 마치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모였다가 분열되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하기 쉬우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교회를 소핑하고 다니는 자들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

복음적 진리를 추구하도록 성도 개 개인의 삶의 성화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 돈, 권력, 성취감, 특정한 사회 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 잠정적 의존의 대상이 되려는 욕구, 건강, 몸매, 외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개인적인 우상들을 비롯하여 군사력, 기술적 진보, 경제적 번영 같은 문화적 우상들, 가족과 군면, 의무, 덕목과 같은 전통 사회의 우상들, 특히 개인의 자유, 자아의 발견, 개인의 부, 성취욕과 같은 서구 문화의 우상들, 이념이라고 하는 지적인 우상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속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적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와 상관성 위기(relevance crisis)를 겪고 있다.

'정체성의 위기'란 그리스도인 됨의 위기이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 세계관의 법칙에 따라 지배당하고

## 진리의 기준-그것이 알고 싶다(1)

(6면에서 계속)

청교도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가 지녔던 특징과 복잡했던 이들의 역학관계를 올바르게 알아야한다. 청교도들 가운데 많은 분파가 있었으며, 서로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도 있었다. 심지어 시간

이 지나면서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 청교도 사이의 특징이 변화되었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영국 청교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절대적 진리'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교리와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청교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16세기 후반이다. 그들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들 자신들도 이 호칭사용을 거부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원리로 삼아 교리와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 삼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청교도들이 지녔던 교리와 신앙의 기준을 접할 수 있을까? '청교도 혁명'의 산물을 통해서이다. 1643년 내란 중에 영국의회가 모였다. 웨스트민스터대성당에 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제정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필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모든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진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심스레 풀어갈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 2020년 청년선교 전망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변화와 성숙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변모해 가려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북미 이민교회의 부흥 시대

내일의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년 전인 1970년 후반 한국에 이민 문호가 열렸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밀려 왔습니다.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의 공황에는 한인 이민자들을 맞이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낯선 땅에 온 이민자들은 교회를 통해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미화를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고달픈 이민생활에 교회는 큰 위안이었고 한국에서 믿지 않았던 많은 이민자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부흥의 시대가 찾아 온 것입니다. 때맞추어 한국의 저명한 부흥사들이 미주 도시를 순회하며 인도했던 심령부흥회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게 해주었고 큰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필자가 1981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민교회 부흥이 시작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부흥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부흥회를 주최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사회만 하고 대표기도, 헌금기도, 축도 등의 순서는 이웃 교회 목회자들이 맡았습니다. 강사의 설교에 성도들은 아멘을 외쳤고 설교 후에는 주여 삼삼 후 뜨거운 통성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마치고는 친교실에 모여서 다른 교회에서 온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는 이민자들의 축제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청년들도 부흥회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모들보다는 영어를 배우기가 수월 했겠지만 여전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부하는 틈틈이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지내는 그들에게 교회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말 성경공부를 마치고는 불링장을 찾아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부흥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1.5세 선교사 한 분은 자신이 20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부흥강사가 뉴욕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버지니

경공부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민 4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초에 토론토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는 캠퍼스 사역단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CCC와 Intervarsity와 같은 미국단체의 한인사역 외에도 한인 자생적인 대학생, 청년 사역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알파와 오메가, 로스앤젤레

스 이민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구촌의 선교현장에서 시니어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40년 전 북미주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결과로 이민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교회가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한 세대를 위하여 오늘 한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적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부흥이 없는 다음세

그 축대로 작용했다면, 오늘의 영적 부흥을 사모한다면 개인의 회개에 더하여 하나되지 못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회개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대의 선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동안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교회의 의식적인 순종보다는 개인의 헌신과 선교단체에 의해 일어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1세대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기는 그들이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 삶을 추구하도록 강요했고 교회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캠퍼스 선교단체나 교육담당 사역자들의 도전에 따라 청년들은 스스로 헌신하여 신학교에 들어갔거나 선교지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 1세대가 자녀들의 안정적 삶을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을 존중하여 각자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의 교회와 선교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북미주 한인교회에 영적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청년세대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예수님의 청년선교

청년선교는 단순히 다음세대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좀 더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요14:12) 자신과 똑 같은 성품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주셔야 했습니다(마11:29-3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가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변화가 먼저였습니다. 3년간 날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변화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 생애를 드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막1:20).

(14면으로 계속)

# 교회는 청년세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 박신욱 선교사

(시드선교회 국제공동대표/미주대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돼 전 생애 헌신하도록 도와야 교회 밖에서라도 공동체 훈련 필수 난민캠프 등 사역의 현장 보여줘야

아에 살고 있던 그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몇 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뉴욕까지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철야기도를 한 후에 학교에 가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와야 했습니다.

40년 전 북미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이민 1.5세대와 1세대 청년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민교회 역사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부흥의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적부흥으로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2세 교육과 자체 건물구입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민 1세대 부모세대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미 이민교회의 부흥은 대학 캠퍼스에도 이어졌습니다. 도시마다 캠퍼스 사역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81년 신학공부를 위해 토론토에 온 후에 토론토 대학교의 대학생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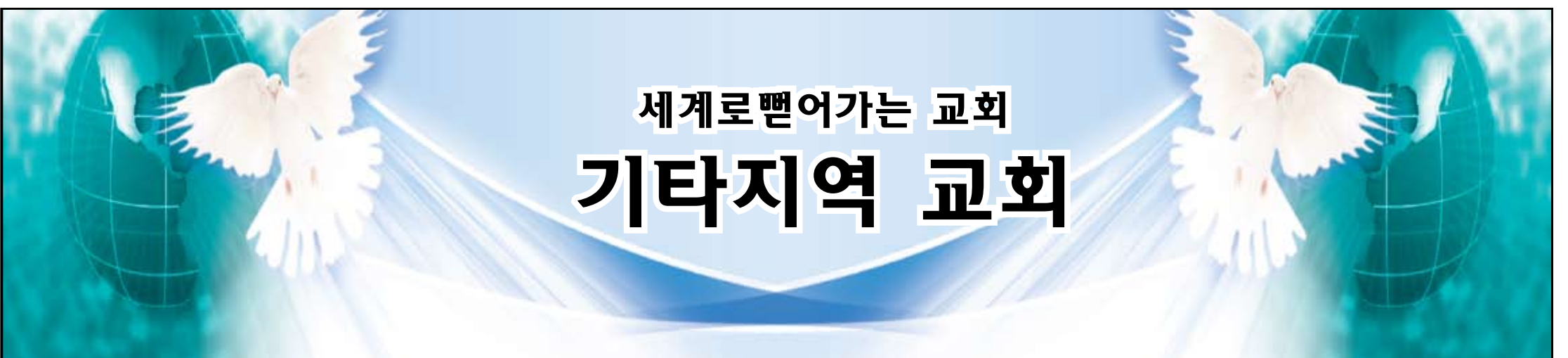
의 WMC, 필그림, 가데스선교단, KCM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1983년 로스앤젤레스 탈보트(Talbot)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목회학석사과정에 30명이 넘는 한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고등학교와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1.5세 청년들이었습니다. 학부과정인 바이올라(Biola)대학교에는 더 많은 크리스천 한인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신학교, 비브리컬(Biblical)신학교, 시카고의 트리니티(Trinity)신학교, 그 외에도 많은 미국 신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 4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이민교회의 평신도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영적부흥의 결과인 오늘의 한인교회와 교회가 맺은 선교의 열매를 돌아본다면 다음세대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한인교회의 모습과 선교의 열매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세대 위해 영적부흥을 소망하면서 찾아야 할 교회의 사역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의 하나됨과 청년선교

부흥은 하나 되게 합니다. 40년 전 이민교회는 연합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의 교회는 연합 보다는 경쟁과 개교회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세대에 전세계 교회를 품었던 교회성장주의가 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전 영적부흥이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이민생활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b>벤앨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위, 언: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대형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언: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영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킬린노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회: 오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2020년 가치관 전쟁

지난해 12월에 들어서면서 어느 사립학교 학생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정교분리의 목적으로 이 소녀의 연주를 막았다. 13세 난 어린 소녀가 그동안 힘겹게 준비해서 연주하려고 했는데 너무 종교적이란 이유로 거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학교당국에 ‘종교자유억압’이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13세 여학생의 피아노 연주를 허락했다.

또, 플로리다의 어느 한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매년 전통으로 진행해왔던 시청 앞 광장 “예수 그리스도 탄생 디스플레이”를 불허하는 시법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평과 소송의 위협 아래 놓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도시에 있는 가톨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일인데 시장은 미헌법의 정교분리란 명목 아래 이런 “성탄 마구간 디스플레이”를 세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는 “정교분리”에 대한 아무런 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종교 자유에 대한 문구는 분명히 기록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는 그리 종교적으로 그리 밝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는 미국 대법원에 새로운 법관을 세우야 할 가능성이 발생했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그리고 극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킨즈버그 판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올해 정치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대법원 판사를 지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지금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판사는 4명. 이런 상황에서 보수성을 지닌 대법원 판사가 지명되면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매우 긴장한 상태이고,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판사들을 속속들이 찾아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게 되는데, 고서치 판사와 캐버너 판사와 또 다른 한 명의 판사가 임명하게 된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으로는 로버트 대법원장이 있고, 캐버너, 알토, 고서치, 및 토머스 판사는 보수진영에 있고, 소토마이어, 케건, 킨즈버그, 및 브라이어는 진보진영에 있다. 킨즈버그 판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가 은퇴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하나의 보수 진영의 판사가 지명된다. 이런 내용을 생각만 해도 청문

회 공방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는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2020년 대선이다.

미국은 지금 거의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적 기류가 매우 힘들게 될 것은 정치적으로 중도에 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너무나 뚜렷해서 진보 아니면 보수로 갈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공방을 비롯한 선거에 이르기까

연방 순회법원 판사들을 모두 진보주의 판사로 세웠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시작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까지 있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 연방 순회법원 판사들이 거의 모두가 보수진영 판사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인구조사다.  
이것은 미국의 선거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조

구조사나 아니면 투표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시 의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시에 누가, 어느 민족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행동적인가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표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들의 의견이 변경된다. 그래서 투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시민의 권리로 행사해야 하고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조사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맡은 지역에 누가 살고 있고 누구에서 신경을 써야 하

너무나 역부족이다.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도 이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들 배후에는 가족계획연맹, 즉 Planned Parenthood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러분 생각에 “성교육이 뭐 그리 잘못되었는가?”라고 하지만 이들이 조성하고 가르치는 성교육은 성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교과서도 도색잡지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성기의 모형을 제작해서 실제 학교에서 보여주며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교학교 학생들은 성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그대로 유치원 학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아울러서 이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녀공동 화장실 사용이다.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학생들에게 이성 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그리고 코커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서 본 협회에서 법원에서 공방을 벌인 일도 있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딸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받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식당이나 관공서로 가보면 모든 화장실이 “All Gender Use”라고 해서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한다.

물론 이런 화장실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별문제가 없지만, 공립학교 탈의실이나 샤워장에 생물학적으로 이성인 학생이 들어와 함께 상용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것을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에 샌디에고 근처에 국경수비대원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성전환자인 남자 국경수비대원 한 사람이 여성탈의장에 들어와 여성 국경수비대원에게 트라우마를 끼친 일이 있었다.

물론 우리 협회에서 이것을 감당해서 잘 처리했지만, 2020년도에는 우리 삶의 영역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만행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 제아무리 보수성을 띠는 행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각 주 정부, 카운티 정부 그리고 시 정부도 아직도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수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는가...(상)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 주시해야 할 점들: ①새로 세워질 수 있는 대법원 판사 성향  
②2020년 대선 ③인구조사에 적극 참여  
④LGBTQ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듯

지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의 정황을 살펴봐도 흑백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당선이 되지 않을 정도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재선에서 당선시키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금 민주당후보 진영에 대선주자로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물론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트럼프와 맞설 자를 선택하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현 정부가 내놓은 일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일구어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준 것만은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는 시 정부에 법원이 있고 각 주마다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연방 항소법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대법원이 있다. 지난 행정부는 미국에 10개나 되는

사에 우리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불법체류자 역시 그의 신분변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사는 지역적 문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남가주에서 한 인이 많이 살고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인데 이곳 지역이 시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마음대로 조종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법안들이 만들어진다.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웨스턴에 내리면 Korea Town이란 팻말이 적혔는데, 이민 초기의 한인들이 시와 의논해서 정해놓았는데 어느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인타운의 반 이상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한인이 협조해서 그 일을 막았다. 그리고 또한 노숙자들의 거처를 한인타운에 세우는 시의회의 결정에 우리가 거부행사를 했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한인들이 인

는지 알려줘야 한다. 정치가 귀찮고 하기 싫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정책에 우리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보고난 후 불평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번째로는 LGBTQ들의 행동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성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억누르려고 한다. 이들은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더 행위를 부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가?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는 공립학교 정책구에 투입되어 아예 노골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해버린다.

물론 우리 협회가 이런 일에 전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싸우고 있지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org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남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필름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새벽예배: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2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필름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Verber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영어권(장소:KDC, 링컨데드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9:30, 11:30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lafcusa@yahoo.com / www.lafcusa.com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다마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혀 벨스 걸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인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주요모임 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9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유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타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엘피스타 역피스타는 (ELPIS)의 뜻은 소망 (Hope)입니다.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후 2: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05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a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F M 예배: 오전 9:45(10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찬양회: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17장 8장 "이름날 모세와 중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족려 짐을 위하여 낸 아브람의 지팡이에 불이 붙고 시냇 물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 14회 총동문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 제 14회 총동문의 밤이 2020년 1월 20일(월) 저녁 7시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회비는 개인 30달러, 부부 50달러. 한편 이에 앞서 2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에서 신년동문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917)733-7387

## 미주동부총신대동문회 정기총회

미주동부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구자범 목사) 2020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가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뉴저지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열렸다.

▲문의: (347)535-2344

## 글로벌뉴욕여목역 제4회기 회장 이취임 예배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제4회기 회장 이취임 예배가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취임회장 안경순 목사, 이임회장 심화자 목사.

▲문의: (929)232-9477

## 동부개혁장신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1월 24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25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1월 27일(월)부터 29일(수)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 주소록출판, 신년하례, 46회기예산안 보고

## 뉴욕교협 임실행위 및 신년감사에배 준비기도회

뉴욕교협 임실행위위원회 및 신년감사에배 준비기도회가 12월 27일 오전 10시30분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2020주소록 출판회 보고와 신년하례만찬 준비 보고 46회기 예산안 보고 등이 있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연말연시 바쁜 가운데 참석하신 실행위원들을 격려하며 임시총회를 잘 마치고 부회장(문석호 목사) 선출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주소록은 준비위원장 손성대 장로가 62개 교회(3만5천7백 달러), 35개 사업체(1만7천9백 달러)에서 총 5만3천6백 달러의 광고예상수입을 보고했다.

신년하례만찬 준비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이번 하례만찬은



뉴욕교협 임실행위 및 신년감사에배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협방향(Let's go together!)과 맞춰 개척교회 목회자부부, 차세대교회, 청년,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는 100좌석을 준비했다”며 후원을 부탁했다.

회계 이광보 장로는 2020년 예산안 376,604.52달러를 보고

했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와 기도회는 조원태 목사 인도로 기도 김진화 목사, 설교 전광성 목사, 합심기도 박마이클 목사(2020신년 감사예배와 하례만찬을 위해), 이종선 목사(한국, 미국, 북한을 위해), 하정민 목사(뉴욕교계, 목사회, 이사회, 평신도지도자를 위해), 임지윤 목사(차세대와 청소년을 위해), 현금특주 신우철 목사, 현금기

도 이은수 목사, 축도 김영식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전광성 목사(하크네시야교회)는 “넉넉히 채우시리라”(출 36:2-7)라는 설교에서 “본문은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부르신 리더십을 보여준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 그보다 그 일을 하려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며 “첫째,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선한 마음 셋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이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알려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보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다. 2020년 놀라운 역사가 교협 가운데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16일(목) 저녁 7시(6시20분 리셉션)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신년감사에배 및 만찬을 위한 3차 준비기도회는 9일(목)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장소는 추후 연락한다. <유원정 기자>



필라안디옥오케스트라가 성탄절이 연주회를 Plymouth meeting mall에서 개최했다. 연주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 필라안디옥교회, 32명 세례 및 입교 예식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지난 12월 18일 저녁 8시 성탄절이 세례 및 입교 예식을 가졌다. 총 32명이 세례 및 입교 예식에 참여했으며 4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안디옥교회 수호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호성기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호 목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가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세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교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안디옥교회는 현재 한어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시교회, 열방교회, 시티교회 등 총 다섯 개의 교회로 1000여 명의 성도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례 및 입교식은 호성기 목사의 인도로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니시 통역을 통해 3중언어로 진행됐고,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One in Christ Church)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이번 세례식에는 다섯 개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했으며, 다섯 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교와 세례 예식 후에 이어진 간증에서 임지희 성도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세례 예식을 통해 확고하고 선언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

한편 안디옥교회는 22일 오후 5시 Plymouth meeting mall에서 필라안디옥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했다.

미셔널처치(Missional Church)를 지향하며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동교회는 성탄을 맞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교회가 아닌 몰(mall)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동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핵심가치 중 Here&Now 선교의 일환으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연주회 동안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쇼핑 중 음악을 감상하는 분들에게 캔디케인과 함께 전도지도 나눠주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부 송년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020 비전 발표...경건한 목회현장 소망

###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부 송년 모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뉴욕지부가 12월 26일 오후 송년 모임을 갖고 2020년 비전을 발표했다.

회장 김승희 목사는 “뉴욕에서 42년간 살면서 2019년처럼 뉴욕교계가 어두웠던 적이 없었다”며, “하나님은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 요즘 한국 정치도 어려운데 뉴욕마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말을 맞아 교협과 목사회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모시고 오찬을 하며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기부 뉴욕지부는 2020년 도 행사계획으로 △뉴욕 목사들의 한국 방문 시 설교 및 부흥회 인도 △한국 목사들이 뉴욕방문 시 설교 및 부흥회 인도 △성경공부 및 기도회 △부흥사 훈련 및 세미나 △회비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렬 목사(사무총장) 인도로 기도는 심화자 목사, 설교는 노성보 목사가 했다. 노성보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 13-1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경

건”을 강조했다.

노 목사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될 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질문하며 “나의 이익이 아닌, 세상의 경제적 원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목회현장인지 되돌아보고 지금까지가 아닌, 이제부터 경건한 목회자가 된다면 뉴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가 “부흥은 갱신이 먼저 일어나야 오는 것”이라며 “뉴욕에 영적 갱신과 함께 부흥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임회장 이만호 목사는 “한국에서 한기부가 시작돼 성시화 됐다”며 “한기부 뉴욕지부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마다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송병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살롯교협 주최 성탄절 연합예배에서 나성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자”

### 살롯교협 주최 성탄절 연합예배

살롯교협(회장 김정일 목사) 주최 성탄절 연합예배가 12월 22일 베델교회에서 열렸다.

오후 5시 베델교회가 마련한 성탄 찬양캠타타(지휘 전기형 전도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 시작된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나성균 목사(살롯장로교회 담임)는 “구약에서 찾은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근거해 “이스라엘이 고난과 속박과 죽음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

시키어 값비싼 대가를 치러 구원해 주시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대가로 구원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내어드리자”고 강조했다.

살롯교협은 북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린튼 가족을 돕고 있는데 그날도 제임스 선교사가 같이 참석했고 애크랜드 영사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사제공: 살롯교협>



주님의식탁선교회가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함께 기념촬영 했다.

## 뉴욕주님교회 등 주님의식탁선교회 찾아 성탄맞이

뉴욕주님교회(담임 정규준 목사)가 지난 성탄절 오전 11시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에 방문해 회원들과 오찬을 하며 선물을 나눴다. 정규준 목사는 성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선교회를 찾아 작으나마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또 담임(다보안영 궁대니엘 대표)과 뉴욕총신교회(담임 안

재현 목사)가 선물한 속내의 한 세트씩, 남성용 패딩 한 개씩, 고등학교 여학생 그룹이 치약, 치솔, 양말, 쿠기와 초콜릿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새벽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뉴욕세이버교회(정요한 목사) 여전도회에서 김치와 깍두기를 담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기사제공: 주님의식탁선교회>



청소년연합수련회가 Streamside Ministry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 “The Life” 주제, 총30교회 200명 참석

### 청소년연합수련회 2019 Youth Wave Conference

전문Youth사역 단체인 Streamside Ministry 주관으로 ‘2019 Youth Wave Conference’ (연합수련회)를

Westin Hotel in Princeton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 교회로 수련회를 준비

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한 이번 수련회는 “The Life”라는 주제로 총 200명 30교회가 연합해 함께 했다.

Youth전문 사역자인 ‘Rev. Benjamin Cha, Samuel Won, Faith Cho’가 주강사로 섬기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총 7개의 선택강의로 각 분야마다 관심 있는 주제의 세미나가 준비돼 진행됐다.

선택강사로는 3명의 주강사를 포함해 Chaewon Seo, David Kim, Eunice Oh, Insuk Hong이 열정적인 강의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음세대의 리더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

또한 참석한 모든 Youth Pastor들은 앞으로도 청소년

을 위한 연합수련회가 지속되길 원하는 바램을 드러냈다.

참석교회는 다음과 같다. 샘솟는교회, 호산나교회, 복된교회, 주는교회, 축복의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꿈꾸는교회, 예수반석교회, 갈보리교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한인감리교회, KMC of NY, El-bethel, Grace Bethel Church, Canaan Presbyterian Church, Dream Church, Giving Church, Chodae Community Church, Korean church of Westchester, Good Seed Church, Livingston Korean United Methodist, Jireh Church, Connecticut Sarang Church, Missionary Alliance Church, HHCC, Zion City, Onnuri, America Wheat Mission. <기사제공: Streamside Ministry>



# 남가주 한인교회 기도로 새해 시작 2020년 각 교회 부흥회, 특별새벽기도회 일정발표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2019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예배로 2020년 새해를 일제히 맞이했다.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LA기쁨의교회

(이희문 목사)의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신년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계속 된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은혜이슬새벽부흥회를,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다니엘새벽기도회를, 다니엘새벽기도회(박준호 목사)는 '이제야'

일시	교회	비고
12/23-1/4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	
	남가주주둔한교회(김현인 목사)	연말특별새벽기도회
12/30-1/4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신년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12/30-31, 1/2-4
1/1-4	LA연합감리교회(이정민 목사)	
1/2-4	나성금관교회(이석부 목사)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1/2-5	선한침지기교회(송병주 목사)	2020년 신년 말씀사경회
1/2-25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다니엘특별새벽기도회
1/2-11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월-금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1/3-4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1/6-10	기쁨우리교회(김경진 목사)	
	나침반교회(민경연 목사)	신년축복 부흥성회
	좋은비전교회(최준우 목사)	신년 특별 저녁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신년축복저녁예배
1/6-11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나성한미교회(신용환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포감사신교회(최경욱 목사)	
	라팔마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베델한인교회(김한오 목사)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소망교회(이정후 목사)	
	오렌지한인교회(피세원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은혜이슬새벽부흥회
	한길교회(박찬섭 목사)	
1/7-11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	
	돌로스선교회(황의정 목사)	
1/9-12	충현선교회(민종기 목사)	신년부흥회(강사: 김대영 목사)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및 이준근 박사 초청 신앙 강연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구국기도회 및 이준근 박사초청 신앙강연 연다

### 1월 4, 5일 시온성결교회...11개 단체 주관 및 주최

2020년 신년을 맞아 가주지역 한인단체들이 합심해 구국기도회 및 이준근 박사초청 신앙 강연회를 갖는다. 미주CBMC 서부총회(황선철 총회장), 미주연세대총동문회(이형숙 회장) 공동주관, 남가주예비역기독교인회(김희창 회장), 3.1여성동지회(그레이스 송 회장), 남가주육군동지회(최만규 회장), JAMA(강순영 회장),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이재권 회장),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김해룡 회장), 영관장교회 미서부지회(진재근 회장), 미주포병전우회(권영구 회장),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노인수 회장) 주최로 1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뉴서호호텔에서 단체장 초청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공동대회장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주동포사회 및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준근 박사 1차 신앙 강연회는 오는 1월 4일(토) 오후 3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 2149 W. Washington Blvd)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라는 주제로 열린다. 2차 신앙 강연회는 1월 5일(주일) 오후 3시 동일 장소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란 주제로 열린다.

실행위위 신정현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협력대회장 김희창 목사가 개회기도를 한 후 이형숙 공동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강사 이준근 박사는 자마 대표로 오래 동안 사역했으며 텍사스주립대 정치학박사로 통일연구원국제관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과 각 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이준근국제정치아카데미, 유튜브방송 이준근TV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909)677-0028 <박준호 기자>



수상작가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김복숙 시인, 황지니 화백, 신영 사진작가.

## “작품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성 더 선명해지길”

### 에피포도 ‘엽서’ 출판기념 및 23회 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 ‘엽서’ 출판기념 및 제 23회 예술상 시상식이 21일 오후 4시 사모하는교회(담임 백승철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 2부 출판기념 및 기념특강, 3부 시상식, 4부 시 낭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 김복숙 시인(산호세) △수필: 권혁선 작가(서울) △포토그래피: 신영 사진작가(보스턴) △미술: 황지니 화백(Compton)이 각 분야 수상자의 영광을 안았다.

정인석 목사(하늘꿈교회 담임) 사회로 한 예배는 남삼진 시인(오렌지살롬교회 담임 목사)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함2:2-4)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장인수 목사(오렌지카운티 갈보리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이어 오소미 시인의 환영사로 막을 연 출판기념 및 기념특강에서 오석환 시인(목사, 캄보디아)이 ‘책속의 또 다른 책’의 주제로 강의했으며 고영준 문학평론가의 서평과 정미셀 시인의 축사가 있었다.

해 기쁨을 나눴으며 나삼진 시인과 김복숙 시인의 시낭송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드높였다. 백승철 대표는 “에피포도가 24년이 됐다. 지금까지 동역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에 수상하는 모든 작가 여러분을 축하한다. 여기서 축하하는 의미는 에피포도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에피포도 문학과 예술상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중심축이 됐으면 좋겠다. 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축복한다”고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백승철 목사는 1995년 10월에 시작한 에피포도의 목적과 정신은 빌립보서 1장 8절(“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이라며, “사람을 사모하는 일, 즉 그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손으로 기록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문학과 예술을 해야 한다”고 에피포도의 목적을 피력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홀리스 사역에 나선 CMF선교원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CMF선교원 성탄 맞아 홀리스들에 선물

### 20년째...33명 6인조로 나눠 샌드위치, 전도지 등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21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홀리스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본 선교원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온 것이 벌써 20년이 됐다. 이번에는 33명의 회원들이 6인조로 나눠 토요일 아침 일찍 회관에 모여서 L.A.다운타운의 홀리스를 위해 500여명의 홀리스들에게 전해줄 샌드위치, 전도지, 그리고 각종 선물이 들어있는 선물주머니를 준비해 나눠줬다.

CMF선교원 관계자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며 “해마다 홀리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CMF선교원>



서울신대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0 봄학기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7일(화)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213)388-1000

**제5차 차드 비전 트립 참가자 모집**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2020년 2월에 생명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를 방문할 차드 비전 트립을 계획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차드는 아프리카 내륙 중앙에 위치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나라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그 나라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 살리기 활동의 일환으로 우물파기 사업, 학교 세우기 사업, 가정결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차드비전트립의 자세한 일정은 2월 15일(토)부터 22일(토)까지이며 참가자의 자격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가비는 항공료를 비롯한 현지 숙박비 등을 포함 3천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562)977-4580

**시애틀형제교회 신년사경회**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신년사경회 2020을 '천국을 찾지 말고, 천국을 살리라'라는 주제로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갖는다. 이번 신년 사경회의 강사는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이며 회비는 20달러. ▲문의: (425)488-1004

**실리콘밸리장로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실리콘밸리장로교회(담임 이영기 목사)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오전 5시30분. ▲문의: (408)267-2345

**뉴송교회 2020년 신년기도마라톤**  
뉴송교회(담임 박인화 목사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수23:10b)'라는 주제로 2020년 신년기도마라톤을 11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오전 5시30분. ▲문의: (972)395-8422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신년새벽기도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신년새벽기도회가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08)536-7244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정성용 목사)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7일(화)부터 11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오전 5시30분 ▲문의: (808)488-3018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담임 박한덕 목사)는 2020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깨어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하라'라는 주제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시간은 6일(월)-9일(금) 오전 5시30분, 10일(금) 오전 5시30분, 저녁 8시. ▲문의: (210)653-2270

**유타한인장로교회 특별새벽기도회**  
유타한인장로교회(담임 한민식 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딤후6:11-16)'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전 6시에 실시한다. ▲문의: (801)322-0222

**덴버소망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덴버소망교회(담임 우영종 목사 1345 S.Dayton St. Denver, CO)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6일(월)일부터 11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 ▲문의: (303)750-0696

**오레곤벨엘장로교회 세겔졸 기도회**  
오레곤벨엘장로교회(담임 이돈하 목사 18370 S.W. Shaw St., Aloha, OR)는 세겔졸 기도회를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오전 6시에 갖는다. ▲문의: (503)649-3990

## 회장 김희창 목사, 부회장 이중일 목사

### 서울신대 남가주총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서울신대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 남가주총동문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지난 23일 저녁 6시, LA 용수산에서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움교회 담임)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 이중일 목사, 안신기 목사, 정가진 목사, 총무 주신 목사, 서기 회계에 신용석 목사를 선임했다. 이날 총신대 미주남가주동문회장 김경일 목사와 성결교 총무 이흥근 목사가 축사하고, 조종근 목사(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담임)가 설교했으며, 2부는 신용석 목사 사회로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성광회 회장 신원철 목사를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서울신대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신년 축하 광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의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 처음의 길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 트럼프탄핵, 진보/보수 노선 극명하게 드러나

## 허핑턴포스트/더힐, 정치권 보수, 복음주의 진영 엇갈린 입장 소개

배리 라우더밀크 하원의원(공화당, 조지아)은 지난달 18일 하원탄핵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 도 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받은 대우가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절차에서 받은 대우 보다 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GOP Rep. Claims Trump Is Being Treated Worse Than Jesus).

“예수가 반역죄로 거짓 고발 당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발한 사람들을 대면할 기회를 주었다. 그 영터리 재판 중 빌라도는 민주당이 이번 절차에서 이 대통령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예수에게 부여했다.”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시절 유대를 다스린 총독이었다. 예수의 재판을 주재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성경에는 그가 예수에게 반역죄를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령했다고 나온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성육신했다고 믿는다.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두 가지 탄핵사유로 트럼프에 대한 역사적 하원 탄핵투표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와 예수에 대한 기이한 비교가 등장한 것이다.

권력남용은 트럼프가 의회가 승인한 안보지원의 대가로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은 것이며, 의회방해는 의회가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탄핵수사와 관련이 있는 문서를 입수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하원표결결과 공화당은 전원이 탄핵반대에, 민주당은 거의 전원이 찬성에 투표해 트럼프 탄핵추천안이 가결됐다.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대통령직 박탈(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원표결 당일 라우더밀크 의원이 트럼프를 예수에 비유한 가운데 트럼프 본인은 표결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CA)에게 세일럼 마녀재판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황당한 서한을 보냈다. 예수처럼 세일럼 재판의 피해자들(거의 여성들)은 객관적으로 트럼프보다 나쁜 처우를 받았다.

트위터에서는 라우더밀크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곧바로 쏟아져 나왔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당, 뉴욕)은 이 영상을 리트윗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는 성경의 로마서 1장 25절을 인용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불리는 ‘백인복음주의 기독교’의 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대표적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19일 마크 갈리 편집자 명의 사설(Trump Should Be Removed from Office: It's time to say what we said 20 years ago when a president's character was revealed for what it was.)에서 “대통령은 정적 중 한 명을 괴롭히고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 지도자를 강압하는 데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려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게 부도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품위의 기준을 낮추고 여성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시인했다고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도 잘못된 묘사와 거짓, 비방의 연속이라며 도덕적으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의 완벽한 사례에 가깝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많은 복음주의자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라’고 말하겠다”고 밝힌 갈리는 다음 달 동 매거진에서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

레이엄 목사가 1956년 발간한 잡지로, 이 매체에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인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집권당인 공화당의 근간이자 스스로 ‘미국의 주인’임을 자부하는 세력으로, 미국의 개혁과 변명을 이룬 ‘미국정신’의 원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때 스스로 백인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지난 3월조사 때 7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반(反)이민정책, 멕시코장벽건설, 무역장벽강화, 동성애와 낙태반대, 반이슬람 행보를 보인 것은 이들 유권자를 의식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교계지도자들은 발각 뒤집힌 모양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잡지에 대해 “좌파의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사용돼왔다. 왼쪽으로 옮겨가 복음주의의 엘리트 자유주의 편을 대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시간 성취한 모든 것을 보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사를 분명히 밝혔다.

제리 펄웰 복음주의자유대학 총장도 트위터에서 2016년 대선 때 20%에도 못 미치는 복음주의자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 잡지가 이들의 일부라는 의식을 지워버렸으며 “크리스처니티투데이가 마스크를 벗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발끈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이 잡지가 “극좌파”라고 규정한 뒤 “종교와 충기를 가져가길 희망하는 급진 좌파 무신론자를 더 갖고 싶어한다”며 “어떤 대통령도 복음주의 공동체에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경건의 연습(약4:9-10)찬387장

삶의 성결은 노력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힘쓸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경건한 슬픔으로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신자라 해서 근심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경건한 슬픔을 구해야 함

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를 가집니다. 셋째, 자기를 의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려면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겸손의 그릇 위에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방종하여 성결을 떠나지만 겸손은 성결을 만들고 지킵니다. 경건 생활을 힘써야

## 화 비판에 관하여(약4:11-12)찬278장

인선문제를 위해 사람을 살피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의 연약을 덮을 줄 모르고 비판함은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마귀의 소행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율법의 준행자는 오직 복종인데 율법의 입법자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참소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타락해 마귀가 된 것처럼 형제를 비판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으로 멸망에 이릅니다. 셋째, 이웃(성도)의 존귀함을 몰각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존귀함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 수 철저한 주권사상(약4:13-16)찬431장

아고보는 경건의 삶을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권하면서 마침내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만이 그 자리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인간주의는 계획은 화려하나 그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무수한 계획과 기교적 방법이 많아도 인간중심의 모든 것은 바벨탑을 쌓고 모두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오직 주권주의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하고 저것도하리라는 주권 사상이 주를 끝까지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주권주의에서 나옵니다. 셋째,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이런 주권사상이 우리 실상을 바로 알게 하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충분히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 목 적극적 선행을 요구함(약4:17)찬93장

믿음은 선행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활의 선행을 가져옵니까? 첫째, 선행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곧 영적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그의 계시인 말씀만이 지고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함

니다. 둘째, 선행의 표준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충분히 일할 때 찾아옵니다. 선행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선행을 이뤄야 합니다. 참 선행을 알고서도 행치 않는 일은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 선행입니다.

## 금 부자에 관한 경고(약5:1-6)찬271장

영적 가난을 상실한 사람은 부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고보는 무엇을 경고합니까? 첫째, 자신의 가난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1).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아고보는 겸손의 위대함을 다시 말 합니다.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고 통곡하는 겸손한 회개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둘째, 불의한 소득으로 얻은 부를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칩니다(2-3).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

이신 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의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셋째, 교만에 떨어진 마음을 경계시키십니다(5-6). 개인의 사치, 방종, 가난한 의인을 정죄하는 학대를 한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런 무서운 교만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힘써

## 토 건담의 중요성(약5:7-11) 찬247장

믿음과 행함의 일원론을 주장하는 아고보는 본문에서 인쇄 곧, 건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열매는 오랜 건담으로 얻어집니다(7). 둘째,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8). 주의 재림의 가까움을 의식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

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성결과 사모심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견고한 마음 곧 건담을 만듭니다. 셋째, 선지자들이 걸었던 인쇄의 결말을 보고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9-11). 섭리적인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만이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한 상급을 받게 한 것처럼 그 인쇄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참 경건은 건담입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람방 / 다니엘 기도원

# 신앙의 유산과 전통 이어 미래세대를 꿈꾼다

디렉터 은성수 목사



디렉터 은성수 목사

“조부모님과 함께 그들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 미래 세대를 꿈꾸며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무려 3세대가 기도원 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다니엘기도원. 1992년 은호기 장로와 은길순 집사 부부가 시작한 이 기도원은 지난 26년간 연중무휴로 오픈해오며 수천 명의 방문자들에게 안식처와 수련회, 여러 이벤트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56:7) 말씀을 비전으로 하는 이 기도원은 현재 은 장로의 손자 은성수(Andy Eun) 목사가 총무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프레지던트는 아버지 은종국

장로(전 애틀랜타한인회 회장)가 맡고 있지만 실무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2017년부터 은성수 목사가 실무를 맡기 시작해 지난해 은호기 장로가 정식 은퇴했다.

지난 11월초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청년연합축제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은 목사는 “처음엔 한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특별히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흑인교회, 동남아시아, 중국교회, 러시아교회 등이 많이 방문해 지금은 한인교와 외국인 교회가 절반씩 차지한다고.

은성수 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부터 6년간 와이엠(YWAM) 선교사로 30개국을 다니며 훈련을 받았다. 신학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에서 햇빛트리신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EM교역자로 주빌리교회 등에서 사역했다. 이후 2015년부터 2년간 리더십사업(Giant World Wide)에서 일하다 2018년 초 할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기도원사역에 전력하게 됐다.  
 그는 기도원사역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가족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원 전경

## 열방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집’...기도훈련학교 시작 도시가 하나님공동체로 연합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길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세대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가야하는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학교인 다니엘학교를 시작했다. 은 목사의 향후 10년 계획은 3가지다.  
 첫째, 다니엘기도원을 통해 애틀랜타 도시를 기도훈련센터로 만드는 것 둘째, 다니엘기도원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집으로 다민족 예배를 지향한다. 셋째, 다니엘기도원

을 통해 애틀랜타 도시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연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꾼다. 이 모든 것이 은 목사의 비전이기도 하다.  
 또한 은 목사는 한국(한인) 교회의 문제는 기도회복보다 ‘첫사랑’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어쩌면 기도는 항상 열려 있죠. 이 기도원이 도시를 위해 기도의 집이 된 셈입니다.”  
 분주한 시제는 교회들이 수련회를 갖는 여름과 겨울. 한번에 1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예배실과 개인 기도실, 합심기도실은 24시간 항상 오픈돼 있다. 또 작년부터 기도훈련

▲홈페이지: www.danielprayergarden.org  
 (유원정 기자)

## 교회는 청년세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8면에서 계속)  
 변화와 전 생애의 헌신은 청년의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청년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을 단순히 교회와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그들의 전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담임목회자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청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청년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자매들입니다. 큰 교회에는 청년담당 목사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은 여전히 담임목회자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청년의 때의 신앙과 헌신의 간증을 그들과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멘토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부딪치는 가운데 죄성과 상처를 가진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치유와 변화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수 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피눈물 나는 말싸움

기도 훈련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 3일간의 수련회나 두세 주간의 단기선교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공동체 훈련은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3년을 투자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기간을 최대한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청년들을 외부단체에 보내어 공동체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물질의 투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는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데리고 다니셨습

니다. 무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의 영적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마9:37-38)고 그들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 씩 보내어 천국복음을 직접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7개국에서 온 열두 명의 청년들을 모아 공동체 선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3개월 훈련 후에 그리스 난민캠프로 3주간 아웃리치를 보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었지만 3개월 훈련의 열매는 3주간의 선교현장에서 맺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는 앞으로 10년간 한인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 제 2의 영적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부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청년선교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40년 이민교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소개] 박신욱 선교사는 1981년 한국을 떠나 캐나다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990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선교현장에서 5년 사역 후 한인선교단체의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돌아와 SEED선교회 본부 선교사로 섬기면서 미주복음방송 사장으로서 방송선교에 헌신하기도 했다. 현재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 Florist NABI

나비꽃집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 탕방 / 뉴욕사모기도회

## 전 세계를 위해 30여년 중보기도

### “섬기는 일로 선택받음에 감사...기쁨으로 순종”

뉴욕에 많은 기독교계 단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독특한 단체라 할 수 있는 단체가 뉴욕사모기도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계단체들은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사모기도회는 뒤에서 내조하는 그야말로 목회자 아내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기도회인 이 모임은 1991년도에 시작되어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년간 기도회를 이끌어온 이연주 사모(퀸즈중앙장로교회 은퇴)에 이어 김경신 사모(뉴욕초대교회)가 2대 회장으로 일한지도 벌써 6년째가 된다.

김경신 사모는 사모기도회를 이끌면서 “한 교회의 사모 역할을 감당하며 사모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때로는 왜 이렇게 엑스트라로 일을 해야 하나, 때로는 힘들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신 사모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이(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 엑스트라의 일이 아니라 메인(main) 일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며 “그 이후로는 사모기도회와 사모합창단을 이끄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됐고 보람이 됐다. 섬기는 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둘째 주 기도회에 참석해 모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다. 찬양과 큐티 후 회원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기도제목을 내놓는다. 그 내용은 중보적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나 어느 기도제목이건 본 기도회 외에 밖으로 그 제목이 나가지 않는다. 남편 목사님에게도 철저히 비밀이다.

그날 기도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합창단은 30여명 참가). 지병을 앓고 있거나 일시적인 병 등 남편목사님의 건강과 목양적 기도, 자녀들의 결혼과 학업 등 진로에 대한 제목들이 많았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가정사, 특히 자녀에 대한 기도제목을 서로 알고 있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등으로 기도 내용을 시작했다.

물론 성도나 주변 사람들(기도제목을 청해오는 경우)의 치유기도 제목도 다수 있었다. 기도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응답받은 결과도 알림으로 감사의 분위기도 있었다.

사모기도회의 막내(50대)인 최영미 사모는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조인(join)한지 3년 됐지만 기도응답이 바로 바로 되어지는 게 가장 감사하다. 또 사모라는 직분이 오픈하기 힘들어서 쌓인 것이 많았는데,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쌓였던 울분이 다 해결되고 사모로서 시행착오 없이 숏컷(short cut)으로 갈 수 있는 조언을 듣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언니(?)들이 많이 생겨 너무 좋다”고 말했다.

또 초창기부터 함께 한 전혜순 사모는 “영육이 힐링되니 안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많이 다녔다”고 말하고, “사모들끼리 인간관계가 다져지니 솔직한 기도제목을 나누게 된다”며 사모기도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뉴욕사모기도회 회원들이 합창연습에 앞서 지휘자 이다윗 목사와 기념촬영 했다.



뉴욕사모기도회 회원들로 구성된 뉴욕사모합창단이 제 1회 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오래전 뉴욕사모기도회 회원들이 모처럼 가졌던 야유회에서 한 컷!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 젊은 사모들 위주로 해서 합창단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에는 포킵시로 기차 단풍여행을, 2015년 1월에 도미니카 선교여행을 다녀왔으며 2018년 4월에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모세미나를 개최했다(강사 홍혜경 사모).

안창의 목사 부인) △회장 김경신(뉴욕초대교회, 김승희 목사 부인) △부회장 전혜순(뉴욕시민교회, 안찬수 목사 부인) △총무 김자희(양무리교회, 김진관 목사 부인) △서기 오미혜(뉴욕동부교회, 유용진 목사 부인) △회계 이옥남(큰샘교회, 이은수 목사 부인).

뉴욕사모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 교육관에서 모

## 매주 모여 큐티, 기도, 찬양, 걷기...사역 감당 능력 받아 남편목사에게도 비밀인 기도제목...강한 유대감으로 가능

초대회장을 맡았던 이연주 사모는 “이 기도회는 자기 필요에 의해 혹은 영적 갈급함 때문에 이어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경우 “우리 부부는 모두 당대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젊은 사모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연주 사모는 “사모는 남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내조하면 된다”고 말하며 “목사가 사모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사모는 스스로 성경보고 기도하고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뉴욕사모기도회는 1997년 이스라엘 및 이집트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더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 그러나 그 후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김경신 사모가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다.

김경신 사모는 6년 전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은 순수하게 기도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사모기도회를 홍보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모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후배 사모들에게 기도의 전통이 물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기도위주라면 앞으로는 사모들을

또 4년 전 창단한 뉴욕사모합창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연을 가졌으며 ‘영성과 실력이 함께한 연주회’라는 평도 받았다.

김경신 사모는 “2020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해외찬양선교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파나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곳에서 양노원, 병원, 교회 등을 방문하고 노방 찬양 전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회 모임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연주(퀸즈중앙장로교회,

인다.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씩 가져온 음식으로 점심을 나눠먹고 후에는 합창연습을 한다. 바쁜 사모들은 합창연습에만 참여하기도 한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공원걷기도 한다. 영과 육, 마음을 모두 힐링하기에 사모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모기도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회장(347-256-6147)이나 총무(718-300-3205)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